

아스널, 셰필드에 6-0 대승...7연승 질주

등록 2024.03.05 09:59:38



[셰필드=AP/뉴스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선수단. 2024.03.04.

[서울=뉴스시스] 김진엽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이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아스널은 5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레이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EPL' 27라운드에서 6-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7연승을 구가한 아스널은 19승4무4패(승점 61)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선두 리버풀(승점 63),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62)와의 우승 경쟁을 유지했다.

아스널전에서 패배한 셰필드는 3승4무20패(승점 13)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에 그쳤다.

아스널은 전반 5분 미드필더 마틴 외데고르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이어 전반 13분 제이든 보글의 자책골을 끌어내며 두 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렸다.

경기 초반 흐름을 탄 아스널은 골 세례를 이어갔다.

전반 15분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전반 25분 카이 하베르츠, 전반 39분 데클런 라이스까지 득점하며 전반전에만 5골을 넣었다.

후반전에도 아스널은 흔들리지 않았다. 후반 13분에는 벤 화이트가 한 골을 더 기록, 6-0 완승에 썩기를 박았다.

이로써 아스널은 지난 1961년 9월의 번리에 이어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3경기 연속 원정 5골 이상을 기록한 팀이 됐다.

지난달 1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아스널은 18일 번리와의 리그 원정에서도 5-0으로 크게 이겼다.

그리고 이날 또 한 번 6-0으로 승리하며 리그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아스널은 오는 10일 오전 2시30분 브렌트퍼드를 홈으로 초대해 리그 28라운드를 치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